

#1. 수능 영어 지문이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영역에서 묻는 ‘읽기’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고찰은 지문을 이해하고 정답 선지를 가려내는 것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능 영어 지문과 문항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짧은 학술적 글이다.
2. 논리 구조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3. 사고 양상은 전개 양상을 따라간다.
4. 공통적인 요소들의 집합이다.

1. 짧은 학술적 글이다.

학술적 글은 전문가로서 필자 자신의 메시지 혹은 논리를 ‘academic’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짧다는 것은 그러한 메시지나 논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좀 더 상세하고 긴 글에서 필자의 의견을 봐야지만 필자의 아이디어를 더욱 수월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수능 영어 지문은 압축되고 또 압축되어 정보의 밀도가 높고 흐름 또한 뾰뚱하다는 것이다. 결국 인지적 부담을 주는 것에 최적화 되어 있다는 말이다.

2. 논리 구조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논리 구조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지문을 읽을 때 어떤 것을 유념해야 할까? 논리 구조는 필자가 제시하는 핵심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전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핵심 아이디어란, 필자가 이 글을 쓴 궁극적인 의도이고, 조직과 전개 방식은 각각 글을 구성한 방식과 이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연히 조직과 전개 방식을 선정하기 전에 핵심 아이디어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조직 방식과 전개 방식은 핵심 아이디어의 가장 효과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논리 구조를 ‘올바르게’ 따라가면 핵심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다.

3. 사고 양상은 전개 양상을 따라간다.

전개 양상은 앞서 말한 ‘논리 구조’와 직결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우리는 전개 양상에 맞추어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글은 A를 말한 다음에야 B를 말하는데 독자로서 우리는 B를 먼저 생각하고 A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치 적분에 대한 개념을 방정식에 대한 개념의 설명이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듯이 글은 하나의 Flow이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구문 독해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특정 진술문에 대한 독자로서 지나친 주관 개입 등) 행위는 지문 속 핵심 아이디어를 곡해하고 잘못된 관점에서 이해하게끔 한다.

#3. 전개와 활용과 응용

이 부분에서는 이제 도입 부분과 전개 부분에서 배운 개념들을 활용해 지문들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게 다뤄볼 것이다.

지문의 파편들을 줄 테니, 이를 먼저 분석해보도록 하자.

1. (2022학년도 6월 고3 21번 문항)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 you can make in your working habits is to switch to creative work first, reactive work second. This means blocking off a large chunk of time every day for creative work on your own priorities, with the phone and e-mail off. I used to be a frustrated writer. Making this switch turned me into a productive writer. Yet there wasn't a single day when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blog post, or book chapter without a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 It wasn't easy, and it still isn't, particularly when I get phone messages beginning "I sent you an e-mail two hours ago...!" By definition, this approach goes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and the pressures they put on you. It takes willpower to switch off the world, even for an hour. It feels uncomfortable, and sometimes people get upset.

소재	
소재의 성격	
맥락적 장치의 범위	
맥락적 장치의 종류	
대상과 특성	

정답

소재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
소재의 성격	switch to creative work first, reactive work second.
맥락적 장치의 범위	I used to be ~ get upset.
맥락적 장치의 종류	예시 (필자 본인 이야기 가져옴) 속 현상-풀이 (frustrated writer이었는데 이렇게 하니 productive writer가 되었다)
대상과 특성	a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 reactive work를 요구하는 사람들

#2. 맥락의 흐름

[6번]

(2023학년도 3월 21번 문항)

① Indirect reciprocity now means something like “If I scratch your back, my good example will encourage others to do the same and, with luck, someone will scratch mine.” ② By the same token, our behavior is endlessly shaped by the possibility that somebody else might be watching us or might find out what we have done. ③ We are often troubled by the thought of what others may think of our deeds. ④ In this way, our actions have consequences that go far beyond any individual act of charity, or indeed any act of mean-spirited malice. ⑤ We all behave differently when we know we live in the shadow of the future.

* malice: 악의

1. 모든 문장에 ‘A→B 틀’을 적용해보자.

문장 ①) A: _____ → B: _____

문장 ②) A: _____ → B: _____

문장 ③) A: _____ → B: _____

문장 ④) A: _____ → B: _____

문장 ⑤) A: _____ → B: _____

2. 포괄적인 문장을 찾아보자. (복수 정답 가능)

문장 번호: _____번

3. 한글로 그 맥락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작성해보자. (한 줄 요약)

[6번 해설]

1. 모든 문장에 ‘A→B 틀’을 적용해보자.

문장 ①) A: 간접적 호혜성이란 → B: “선행 베풀면 이 예시가 선례가 되어 누군가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주겠지?”

문장 ②) A: 우리의 행동 → B: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뭘 했는지 알 가능성에 의해 형성됨

문장 ③) A: 우리 → B: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지 때문에 걱정함.

문장 ④) A: 우리의 행동 → B: 개별 행동을 훨씬 뛰어넘는 자선적이거나 악의적인 결과를 가져옴.

문장 ⑤) A: 우리 → B: 미래의 그림자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다르게 행동함

→ 우리의 행동: ‘가능성’이 결정함 + 개별 행동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 가져옴

→ 우리: 딴 사람들 시선 때문에 걱정 + 미래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는 걸 알 때 달라짐

2. 포괄적인 문장을 찾아보자. (복수 정답 가능)

문장 번호: ①번

3. 한글로 그 맥락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작성해보자. (한 줄 요약)

‘내가 이쁜 짓 하면 딴 사람들도 나한테 언젠가 선행을 베풀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모두 걱정 많이 합니다~

#4. 파편의 재구성

(C)

개인이 여러 외재적 요소(heritage and environment)에서 부여받는 내적 특성 때문에 정신 -> 필터로서 작용함. + 이걸 지나가는 모든 외부 인상 -> 필터링되고 처리됨.

HOWEVER 문학에서 독자가 접하는 세계 -> 다른 의식(=정신)에 의해 이미 처리되었고 필터링되어 있음.

정리) 개인의 정신 -> 필터로서 작용함. + 모든 외부 인상 ('현실 세계'의 events and details) -> 필터링되고 처리됨 / However 문학: 이미 다른 정신이 필터링해둔 것임

앞선 맥락) '진짜 세계'의 특성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인간 정신의 기능을 '필터'에 비유하며 설명한다. 또한 '외부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하며 인간 정신이 '현실 세계'에 작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뒤에 나올 수 있는 요소: '문학' 세계, 즉, '허구의 세계'의 특성

(D)

저자 -> 독립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게 하거나 세상에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을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용물을 선별함. 동기가 뭐든 간에 저자의 주관적인 개념 -> 독자와 그것 그 자체 그대로의 세상 사이에 서 있음.

정리) 저자가 내용물 선별함. + 저자의 주관적 개념 -> 그것 그 자체 그대로의 세상과 독자 사이에 있음.

앞선 맥락: 인간 정신의 기능 + '현실 세계'에 작용하는 방식 + '문학'

이어질 수 있는 이유: (C)의 '문학'에 관한 맥락을 구체화함. '저자'의 역할과 (C)의 '이미 처리된'이라는 표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총정리) '보기' 문장인 (B)에서 허구의 세계와 진짜 세계를 가르는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이를 설명하고자 (A)에서 '진짜 세계'의 특성인 '무한한 혼돈'을 언급하고 '인간 정신'의 기능(인지했을 때 처리하고 조정함)을 언급한다. 또한, 이를 받아 (C)에서 '인간 정신'의 특성을 '필터'에 빗대어 표현한다. 또한 '문학'에서 독자가 마주하는 세상은 이미 다른 의식(or 정신)이 처리했고 필터링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저자'가 이미 '처리'했다고 하며 '진짜 세계'와 '허구의 세계'의 차이는 '미리 처리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